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436 (주날개밀)	221 (받아주소서)	165 (주의잔치)	416 (좋기도 좋을시고)

제 1독서 | 요엘 2,22-24.26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화답송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좌)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우)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좌)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 2독서 | 요한묵시록 14,13-16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낮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2,15-21

영성체 후 묵상 |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다양한 것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자 하시는지, 어떤 길들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기도 안에서 그분께 여쭙보았으면 좋겠습니다.

Today's Gospel, <Luke 12,15-21>

Then he said to them, "Watch out! Be on your guard against all kinds of greed; life does not consist in an abundance of possessions."

And he told them this parable: "The ground of a certain rich man yielded an abundant harvest. He thought to himself, 'What shall I do? I have no place to store my crops.'

"Then he said, 'This is what I'll do. I w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bigger ones, and there I will store my surplus grain. And I'll say to myself, "You have plenty of grain laid up for many years. Take life easy; eat, drink and be merry.'"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Then who will get what you have prepared for yourself?'

"This is how it will be with whoever stores up things for themselves but is not rich toward God."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사랑으로 산다함은

한없이 주는 것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값음을 요구함 없이

나는 계산함 없이 주고 있나이다.

나는 확신하나이다.

누구나 사랑한다면 계산하지 않음을.

인자함이 넘치는 하느님 성심께

나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쳤나이다.

나는 몸 가볍게 달리고 있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보물이라고는 가진 것이 없나이다.

오직 나의 유일한 보물

사랑으로 사는 것밖에!

-성녀 소화 데레사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제자 선택 기준>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둘을 뽑으셨다.” (루카 6,13)

교회의 기둥인 열두 사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가 좀 이상하지만, 객관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을 뽑으신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들은 교육 수준이 낮고 생각도 짧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처음부터 그다지 훌륭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다는 것을 다 알고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잘 뽑으신 것입니다. 잘 뽑는다는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달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선택 기준이 세상의 선택 기준과 다른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뛰어나고 성격도 좋고, 서로 어울려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목하게 사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전에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남들이 볼 때에 “저렇게 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평화롭고 서로에게 잘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좌충우돌 공동체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천대받는 것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1코린 1,27-28). 예수님이 뽑으신 열두 제자의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어리석고 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뽑으신 것은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뛰어난 사람,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말하자면 찌그러진 과일 같은 사람 곧 세리, 창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셨지요. 예수님이 어울려 다닌 사람들은 귀족이나 학자, 사제들이 아니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삶을 함께하시는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역시, 처음부터, 뛰어난 공동체를 택할 생각은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굽어 돌아가는 하느님의 길 中, Sr.안소근 실비아>

⇒ 마르코 2장 17절의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봅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나고, 부족한 모습을 아시면서도 다시금 저를 부르신다는 사실에 희망을 둡니다. 그분의 사랑이 저를 휘감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더 열고, 그 사랑이 제 오만함과 교만함을 불살라버리길 기도합니다.

공지 사항

1. 추석 한가위 행사

오늘 미사 후 식사 나눔 및 행사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며, 공동체 모두와 기쁨을 함께 나누시다.

* 미사, 식사나눔, 그리고 행사를 위하여 봉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견진성사

- * 견진성사 일시: 9월 29일(주일), 오후 3시
- * 크리스토퍼 대주교님께서 영어 미사 집전
- *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신자 분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9월 1일	유아·청소년: 22명	성인: 36명
9월 8일	유아·청소년: 20명	성인: 51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9월 15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다음주 (9월 22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9월 8일)	마르코반
다음주 (9월 15일)	마태오반

| 우리들의 정성 | (9월 7일 ~ 9월 13일)

봉 헌 금	\$388			
교 무 금	\$530			
권묘순	김정수	김태룡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재희	장호훈	정수민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 기도 지향 |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 이원순 글라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